

건설/건자재

통화 정책 VS 재정 정책

건설/건자재 Analyst 박용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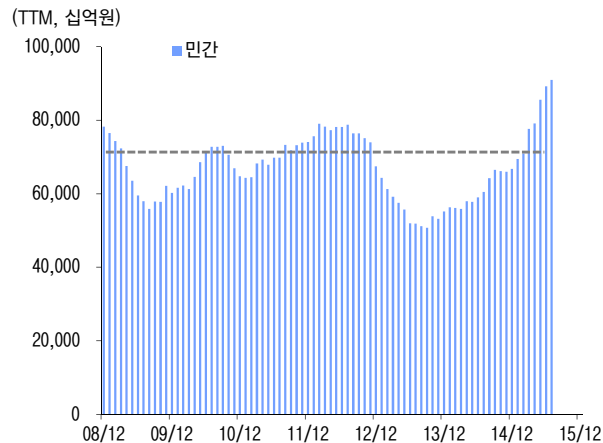
02. 3779-8944

yhpark@ebestsec.co.k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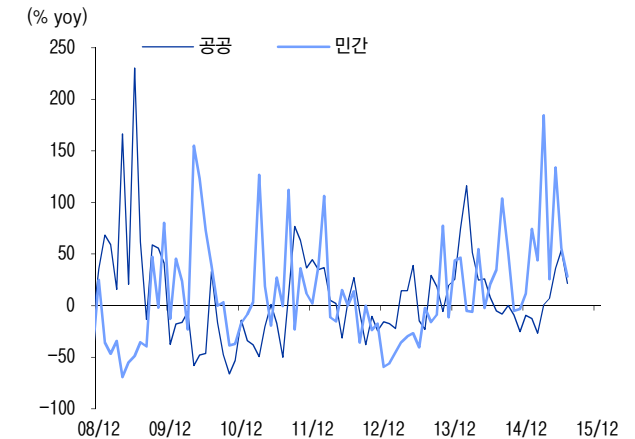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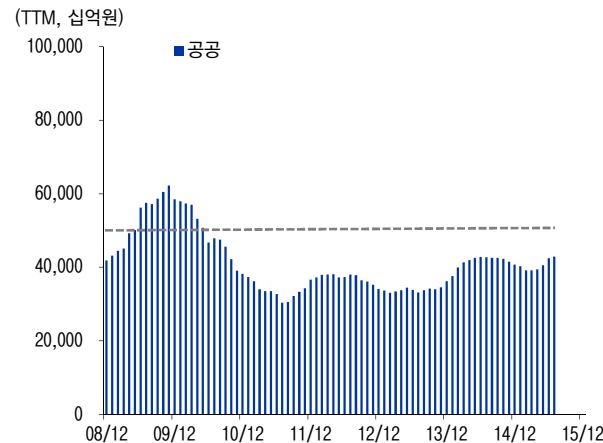
이슈
Call

2015. 10. 14

Chart



자료: 건설산업연구원,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

자료: 부동산114,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Call

- 1 통화 정책: 2013년 이후 금리 인하 등 통화 정책 영향으로 민간 중심의 발주 증가세 유지
- 2 재정 정책: 2008년 이후 정부의 재정 지출은 축소세 유지되며, 공공 발주는 지속 감소
- 3 통화 정책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면, 경제 펀더멘털 대비 자산의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짐. 단적인 예가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
- 4 민간 투자는 점진적으로 한계를 보일 것이라 판단. 반면, 공공부문 투자는 민간 투자의 축소분을 완화 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. 자연스럽게 통화정책에서 재정정책으로 정책 변화가 기대되는 상황
- 5 문제는 국내 공공 투자는 크게 증가될 부문이 없는 상황. 최근 통일관련 정책이 나오는 것도 이런 사유에서 발생한다는 판단
- 6 전세계적으로 비슷한 상황일 것으로 추정. 통화 정책 기조 유지 및 재정 정책 기대감 가질 시기란 판단

Compliance Notice

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(작성자: 박용희)

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.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될 수 없습니다.

-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.

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

구분	투자등급 guide line (투자기간 6~12개월)	투자등급	적용기준 (향후 12개월)	투자의견 비율	비고
Sector (업종)	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 단계	Overweight (비중확대) Neutral (중립) Underweight (비중축소)			
Company (기업)	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 단계	Buy (매수) Hold (보유) Sell (매도)	+20% 이상 기대 -20% ~ +20% 기대 -20% 이하 기대	90.2% 9.8%	2015년 2월 2일부터 당사 투자등급이 기존 4단계 (Strong Buy / Buy / Marketperform / Sell)에서 3단계 (Buy / Hold / Sell)로 변경
		합계		100.0%	투자의견 비율은 2014. 10. 1 ~ 2015. 9. 30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(최근 1년간 누적 기준. 분기별 갱신)